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한전KPS, 원전 종합서비스센터 착공식 개최

— 원자력 특화 서비스 및 원전해체사업 등 신성장사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



한전KPS 원전 종합서비스센터 조감도

발전플랜트 Total 서비스 전문 기업인 한전KPS(사장 정의현)가 5월 19일 경주시 외동읍 문산 제2산업단지 한전KPS 원전 종합서비스센터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한전KPS 이선민 신성장사업본부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경주시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전KPS는 발전플랜트의 설비 진단 및 성능 개선, 국내외 발전설비 O&M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재생 EPC와 산업설비, 그리고 송변전설비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공기업으로, 이번 한전KPS 원전 종합서비스센터 착공을 통해 원자력 특화 서비스 및 원전해체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강화하고, 중장기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전KPS 원전 종합서비스센터는 '새로운 역사 창출! 도전·성장·확합 중심의 원전 종합서비스센터'라는 슬로건으로 원

자력 산업 밸리 구축과 연계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상생 투자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한전KPS 이선민 신성장사업본부장은 “한전KPS는 원자력 발전설비의 유지와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과 특화된 기술을 갖추고 원전 안정성을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원전 종합서비스센터 건립을 통해 한전KPS가 보유한 원자력 정비 기술을 더욱 성장·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 원전 종합서비스센터는 업무시설과 공장을 갖춘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2018년 8월 준공될 예정이며, 앞으로 원자력 분야에 특화된 엔지니어링과 기술 지원을 통해 발전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